

허씨애기 열닉슬에
알드르 이칫 애기업개로 가,
거기 줌수 서이
마라도에 물질을 갔다가
오월 장마이 되여서
사흘을 거기 무인지경에
천막을 쳐서 눕게 되는데,
흐를밤 몽에는
산신대왕이 느르서
선몽을 흐되,
“열닉슬 난 처녀를
두고 가민
너가 살 것이라.” 흐여,
그런디, 이제는 날이 새여,
태가 나오라,
올라온 덕으로
섬비물 와서 태에 올라,
열닉슬 난 애기업개?라
“저디 지성귀 넌 거, 강
긔정 오라.” 흐여,
애기업겅 똑기 털어치와두언
태를 툇와 떠나 오니,
그 할망이
낮에 일되 밤에 일되
열나흘 굶어 죽으니,
뒗헛 스월이 나니
거길 간 보니

광만 술근하엿으니
이제는
아미선관 신도본향
일뢰중주로 들어사니,
이 묵을에선
이 당을 잘 위하니
일신 펜고흡네다.

제일 매 7일

<대정읍 가파도 남무 62세 정신송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542-543.